

사계절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프로야구 '플레이 볼'



2007 프로야구가 6일 오후 6시 대구(삼성-두산), 대전(한화-SK), 수원(현대-롯데) 오후 6시 30분, 잠실(LG-KIA) 오후 7시 구장에서 일제히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8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 5일 개막전 선발 투수로 제이미 브라운(삼성)-다니엘 리오스(두산), 류현진(한화)-케니 레이번(SK), 마이클 켈러웨이(현대)-손민환(롯데), 박명환(LG)-윤석민(KIA)을 각각 예고한 상태다.

올해로 출범 26년째를 맞은 프로야구는 7개월동안 팀당 126경기, 총 504경기의 페넌트레이스를 치르는 가운데 어느 해보다 급격한 전력경쟁화가 이뤄져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삼성과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구축한 한화, 시범경기에서 돌풍을 일으킨 SK, '젊은 마운드'가 돋보이는 KIA가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지난 시즌 뒤 전력보강에 심혈을 기울인 LG와 '독심 야구' 두산, 타격 3관왕 기대화가 이끄는 롯데, 최근 10년간 네 차례나 우승한 현대 등도 4강을 노릴 전망이다.

'우승 후보' KIA는 좌완 전병두가 시범경기 3경기 11이닝동안 무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마운드에 새로운 힘으로 떠올랐고, 프로 2년차 진민호와 한기주를 비롯해 양현종, 윤석민, 김희철 등 젊은 마운드들이 눈에 띈다.

KIA, LG와 잠실 개막전 선발 투수 윤석민 예고

또 타선에선 장성호가 '10년 연속 3할'이라는 대기록 도전과 함께 새로 영입된 서튼과 중심 타선에서 활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빅쇼터' 최희섭(팬파베이)의 합류 소식도 반갑다.

이와함께 올 시즌엔 지휘자가 바뀐 SK와 LG, 현대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복귀한 김성근 감독과 미국에서 돌아온 이만수 수석코치 체제로 사령탑을 구축한 SK는 시범경기를 통해 투·타에 걸쳐 가장 탄탄한 전력을 선보이고 있다.

'승부사' 김재박 감독을 영입한 LG는 지난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였던 박명환과 미국프로야구에서 활동했던 봉중근, 검증된 용병인 팀 하라리자를 영입해 완전히 새 얼굴로 팀 마운드의 1, 2, 3선발투수를 선정했다.

한편 KIA는 오는 10일 현대와의 2007시즌 홈 개막전을 맞아 식전행사로 이휘재, 정준하, 안정훈 등이 모인 연예인 야구단 '한(恨)'을 초청해 오후 4시부터 90분간 KIA자동차 광주공장의 'KIA모터스'와 경기를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응원가

KIA는 2007년 팬복을 통해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진정한 KIA팬'이란 주제로 KIA 팬들의 다양한 응원가를 소개했다.

◇ 선수별 안타응원

- ▲이종범(뽕빠레 리듬)=이~종범 이~종범 안~타 이종범(안타)
- ▲장성호=날려버려 날려버려 안타 장성호(헤이!), 날려버려 날려버려 날려버려 날려버려 스나이퍼 장성호
- ▲심재학(울챙이송 리듬)=날려버려~러 안타 심재학 날~~~러버려 안타 심재학, 1루타가 쭈~욱 2루타가 쭈~욱 3루타, 홈런 날려버려네
- ▲손지환(까치까치 설날 리듬)=안~타 안타 손지환 안~~~타 손~지환, 안~타 안타 손지환 안~~~타 손지환
- ▲이재주(사나이로 태어나서 리듬)=날~러버려 날려버려(안타), 날~러버려 날려버려~러 안~타 이재주(안타)
- ▲김상훈(엘리제 리듬)=안~타 안타 김상훈~~ 김상훈~ 김상훈~
- ▲이용규(빈대떡 신사 리듬)=날~러버려 안타 이용규~ 날려버려 안타 이용규(안타)
- ▲김주형(마음약해서 리듬)=안타 김주형(헤이!) 안타 김주형(헤이!) 날려버려 안타 김주형(안타) 안타 김주형(헤이!) 안타 김주형(안타) 김주형(헤이!) 안타 김주형(안타) 김주형(헤이!) 안타 김주형(안타)

◇ 전체 안타 응원(000은 선수 이름, *은 반복)

- ▲팀링팀링 팀링팀링 리듬=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000 * 2
- ▲윌리엄스 리듬=날려라 안타 000 날려라 안타 000 날려라 안타 000 000 * 2
- ▲3, 6, 9 리듬=000 000 000 000 안타 000 * 2

◇ KIA 전체 리듬송

- ▲아, 대한민국 리듬=아~아~최강 KIA 아~아~타이거즈 아~아~영원토록 사랑하라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긴장'이 '여유'

병규 한눈 팔지않고 훈련에 열중 승엽 '팀 기둥' 자신감...시종 미소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에게는 여유가 흐르고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에게는 긴장의 눈빛이 역력하다. 일본프로야구 4년차 선수와 투키의 현 처지가 고스란히 읽힌다.

현재 도쿄돔에서 한국인 타자대결을 치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경기 전부터 사뭇 다르다. 오후 1시부터 러닝으로 훈련을 시작하는 이승엽은 웨이트 트레이닝, 수비 연습, 타격 연습을 차례로 치르면서 여유가 넘친다.

시즌 초반 부진에 대해 "일본 야구 4년차이지만 역시 쉽지 않다"면서도 "7~8월이면 홈런왕 승부가 갈린다"며 앞날을 예견하는 능력이 생겼다. 시즌 흐름을 조망할 수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발언이었다.

요미우리로 이직한 지난해 주위의 예상을 깨고 타율 0.323을 때리고 41홈런에 108타점을 올리면서 센트럴리그를 정복한 자신감이 지금의 여유를 가져다 줬다.

반면 일본 진출 첫 해인 이병규는 '적응'이라는 지상 과제 앞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다. "주위에서 '적응'이라는 말을 삼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도리어 부담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선수라던 누구나 거쳤던 '일본 야구 첫 해 징크스'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도쿄에서 방문 경기를 치르다 보니 정해진 훈련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해 노닥거릴 시간도 없고 경기 후 따로 인터뷰를 할만한 공간도 없다.

오후 3시 40분부터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그는 러닝과 수비, 타격 훈련을 차례로 마치고 곧바로 경기에 나선다.

한 눈을 팔 새가 없이 움직이고 웃는 낯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새 분위기에 긴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리알 그린' 공포

날씨 건조...그린 속도 빨라져 선수들 공략해법 찾기 고심

"이제 우리는 왁스를 칠한 자동차 보닛(engine hood) 위에서 퍼팅을 해야 할 것 같다."

5일 오후 9시(한국시간) 아널드 파머의 시타로 개막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대회에 대한 선수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회기간 내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나오자 선수들은 "그린에서 고생 좀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오거스타네셔널골프장의 그린 스피드는 약분이 높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오거스타네셔널골프장 그린에 대비해 퍼팅연습을 하려면 부위(타일)바닥이 제격"이라고 말했다.

비가 내리면 그린의 스피드는 한결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번 대회에는 이런 '행운'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날씨가 건조하면 그린상태는 스피드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더 단단해진다.

그렇잖아도 볼을 세우기 어려운 오거스타네셔널의 그린에 단단해지면 선수들은 그린공략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 뿐 아니라 여러차례 오거스타네셔널의 그린을 밟아본 선수들도 일기예보를 들고는 '공황'에 빠져든 모습이다.

퍼팅에 능숙하기로 이름난 세계랭킹 2위 짐 퓨릭(미국)은 "세계 어느 골프장에서도 이렇게 빠른 그린을 찾아볼 수 없어 미리 퍼팅 연습을 해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연습그린에서 얼마든지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코스의 실제 그린에 비해 연습 그린의 스피드는 훨씬 떨어진다.

더구나 오거스타네셔널의 그린은 경사가 매우 심하다. 짧은 퍼팅이라도 홀을 지나가면 3m나 더 굴러가는 것은 기본이고 10m까지도 지나가 버린다. 2m 내리막 퍼팅이 홀을 살짝 지나가야 하는데 하염없이 굴러 갈 정도로 나가는 일도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다.

오거스타네셔널의 그린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했다는 찬사를 받는 우즈조차 "날씨가 계속 화창하다면 퍼팅할 때 조심해야 한다"면서 "잘 쳤다 싶은 퍼팅이 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대개 홀 근처에 멈추기 마련이지만 여기서는 좀 기다려야 한다"고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우즈는 "집 뒷뜰에 퍼팅그린을 만들어놓고 10년 동안 매일 퍼팅연습을 했지만 마스터스 1라운드 때는 늘 퍼팅이 쉽지 않다"고 덧붙이며 "골프황제"도 그린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AP-연합뉴스

